

사랑의 샘

2008



통권126호



5월이 오면 년 중 행사로 야외예배와 가든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나원 등나무 아래서 진행했는데 좋은 날씨가운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①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②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③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신청 장소 및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제공 (www.longtermcare.or.kr)

2) 문의 및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결과통지 →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내는 상태
- 2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 3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서비스의 종류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
- 특별 현금 서비스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5. 장기요양서비스 본인 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합니다.

2008년
사랑의 샘(여름호)
 창간 1986. 2. 1



나의 친절
 너의 웃음
 우리 기쁨
 모두 행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

통 권 : 126호
 발행인 : 정영록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8. 6. 20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위원 : 오은숙, 이정환, 이소라, 박영옥

휴식과 건강 관리

원장 박양조

여름은 휴식의 계절이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은 휴식을 원한다. 과로는 금물이라고 한다. 휴가를 떠나보자.

여유가 있으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항공료도 비싸진 요즘 국내에서 좋은 휴가장소를 찾는 것도 생활의 지혜이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가까운 계곡이나 해변을 찾아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2	도자기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를 다녀와서...
3	생신잔치 생신자 외식 프로그램
4	추모의 글 고 박근용 목사님을 추모함
5	행사이벤트 즐거운 야외예배와 기든파티
6	한나요양원 행복한 벚꽃 나들이
7	방문자 공연 갈보리선교회 방문공연
8	좋은 이웃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10	사랑과 나눔
12	한나그린힐 서천 쭈구미 축제 나들이의 하루
13	한나요양원 요양보호사 실습
14	한나용양원 한나요양원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
15	한나용양원 학생 자원봉사
16	실습생의 글 사회복지 실습의 보람

이천 도자기 축제를 다녀와서...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박영옥

제22회 이천도자기 축제가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설봉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을 즈음인 5월 23일 한나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설봉공원을 향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여 나들이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날이었고, 마침 우리가 참석한 도자기 축제날은 장애인 행사가 겹쳐있어서 축제의 흥이 더하였지요.

설봉공원 초입에 있는 설봉호수는 시원스레 분수를 뿜어대며 마치 우리 어르신들을 기다렸다는 듯 반겨주었습니다.



설봉호수 다리에서 분수를 배경으로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이 필수죠

그리고 대 공연장에서의 벨리댄스, 노래자랑 등 공연관람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음껏 웃고 즐기는 시간이었으며, 도자기 체험 및 월전미술관, 문학동산을 돌아보는 어르신들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나절 도자기 축제를 즐기다보니 저녁식사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주는 배꼽시계에 맞춰 또순이 순대국밥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순이 순대국밥집은 우리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대하여 정성껏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계신데, 도자기 축제관람에 맞춰 초대해주셔서 어르신들께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하늘아래 풍성한 볼거리와 푸짐한 식사대접까지....

살랑살랑 이는 봄바람처럼 어르신들의 마음에 설레임이 살랑이는 하루였습니다.



월전미술관 앞에서



문학동산에서 추억 속에 잠겨 찰칵

생신자 외식 프로그램

한나요양원 물리치료사 김덕수

2008년 2월부터 한나요양원 어르신들께 매달 식사봉사를 해주시는 고마운 두 분의 사장님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신둔면에 위치한 '토야외식' 과 중리동에 위치한 '또순이 순대' 집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두 분 사장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껏 어르신들을 위하여 매달 식사봉사를 해 주십니다.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드신 후 생신자 어르신께서 생일케익을 자르고 계시는데 매번 케익도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분들과 함께 토야식당 앞에서 기념촬영^^^



또순이 순대집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식사 외에도 떡, 과일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음식점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고 박근용 목사님을 추모함

한영제 장로
기독교문사 대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장
이천한나원 이사



고 박근용목사 장례예배

나는 고 박근용 목사님을 오래 전부터 알게 되었고 또한 친하게 지냈습니다. 내가 해방 직후 평안북도 구성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여 대구에 가서 살면서 평북교회에 출석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가서 사시는 이성호 목사님이 시무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새벽기도회를 박근용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난로에 불이 잘 안타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어렵게 기도회를 인도하여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때부터 박 목사님을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고향이 평안북도 강계군으로 피난 전에 평양신학교 학생이며 전도사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는 전도사로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여 다른 구역에서도 철조망을 뚫고 건너와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도 많이 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송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목회는 평북 하진포교회, 김포 대광교회, 전북 진안교회, 서울 신남교회, 일신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학교 일은 정신 여자중학교 교목, 승덕·경민·성택중학교 교장, 송실대학교 교목실장,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신학교재로 신약총론 등을 저술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번역에 재능이 많으셔서 내가 경영하는 기독교문사에서 번역위원장으로 바클레이 주석, 매튜헨리 주석, 베이커 주석 등을 번역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오랫동안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나와 동갑으로 친구로 지냈으며 평양 노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설립할 때에 이사로 모시고 많은 협조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을 설립할 때에 부동산을 기증하셨고 이사로 추대되어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셔서 양평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다가 소천하셔서 지난 3월 26일 일신교회 예배당에서 평양노회장으로 장례예배를 드려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야외예배와 가든파티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2008년 야외예배와 가든파티가 한나 요양원 어르신들과 그린힐 어르신들을 모시고 5월 27일 오전 한나요양원 등나무 밑에서 있었다.

한영제 장로님 부부, 그린 힐 어르신 18분, 한나요양원 어르신 32분 직원 25명 등 총 79명이 참석하여 원장이신 박양조 목사님의 사회로 찬송가 78장, 40장 찬양과 차종용 장로님 기도에 이어 원장이신 박양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마쳤다.



차종용 장로님께서 우리 한나원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어르신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나원 어르신들이 박양조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를 하셨는데 오늘의 메뉴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는 보신탕과 직접 숯불에 구운 목 삼겹살, 그리고 생 오징어 양념구이였으며 다양한 야채와 미역국도 추가하여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하였다.

거동이 불편하여 원내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참석하신 분들과 차별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며 동일한 음식을 나눠드렸다.

날씨도 좋아 시원한 등나무 밑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자 시장하셨는지 대화도 별로 없이 모두 맛있게 드셨으며 잘 먹었노라고 직원들에게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직원들이 여러 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음식은 남김없이 적당하게 준비했고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뛰며 수고했다



직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숯불구이 목삼겹살 드리기 위해 열기와 연기를 무릅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보신탕과 숯불구이 목삼겹살 야채와 함께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행복한 벚꽃 나들이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화창한 봄날 4월 17일(목) 어르신 17분과 직원 8분이 호암미술관 앞 희원으로 벚꽃 나들이를 다녀오셨다.

다른 곳은 벌써 벚꽃이 다져가고 있으나 여기는 한창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스러웠으나 입장권을 구입하여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마침 바람이 불어와 벚꽃 눈보라를 보는 것 같아 그 아름다운 광경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탄성을 질렀다.

몇 년 전에 왔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짧은 시간에 지체 없이 호수가 바라보이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쉬려니 급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드시자고 하셨다.



우리 한나요양원의 멋쟁이 남자 어르신 들입니다. 아무쪼록 우의를 돈독히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더운 날씨지만 용기를 내어 호암 미술관까지 올라오신 우리 한나요양원의 영웅들이십니다. 행복하세요. 파이팅!!

호수를 바라보며 시원한 벚나무 그늘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통닭을 드렸는데 그것마저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이 많이 있어 평소와 달리 너무나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놀라웠다.

휴식을 취한 후 호암 미술관 관람을 가자고하니 다들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금방 따라나섰다.

호암 미술관을 가려니 언덕이 많아 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편한 길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니 여기 경치도 밖에 못지않아 지나면서 사진도 찍고 쉬기도 하면서 이야기 저얘기 어르신들과 평소애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려와 단체사진을 여러 장 찍고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름다운 꽃동산을 뒤로 하고 한나원으로 돌아왔다.



사랑의 샘

아름다운 꽃들과 호수를 뒤로하고 마지막 단체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모두 웃으세요. 찰칵!! 내년에도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갈보리선교회의 율동과 찬양 공연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오은숙

지난 5월 갈보리선교회에서 방문하여 좋은 공연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1977년 갈보리 중찬단 발족으로 시작된 갈보리 선교회는 영혼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로서 주로 특수기관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연전도 집회를 해오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 위십, 예수님의 일생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무대를 압도하는 춤사위, 율동과 찬양이 어우러진 위십과 찬양하는 모습에서 거룩한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뼈가 녹는 아픔’을 느끼셨고 눈물이 나올 만큼 은혜



로웠다고 하신다. 단원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갈보리 선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나그린힐 현황

입주자 현황 (5월말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42명	12명	30명	3명	2명

직원 현황 (5월말 현재)	계	축탁의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15	1	1	1	1	8	2	1

※원장, 사무국장은 한나요양원과 겸임.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 3월 1일

평택홍광교회 고복남 목사 외 19명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 음악위로회를 해주셨습니다.

▶ 3월 11일

큰빛 부부안경원 박종일 장로부부께서 우리 어르신들께 안경 27개를 맞춰주셨습니다.



◀ 3월 23일

수원침례교회 김관태 장로님 외 4명이 의료 및 미용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 4월 12일

동국대 행정대학원 홍광표 교수님의 인솔로 사회 복지 전공 대학원생 60명이 어르신들을 위해 말벗, 휠체어 봉사를 해주셨으며 떡과 음료 등을 기증해 주시고 한나원 시설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 4월 25일

안동여성복지회관 김덕규 회원 외 120명이 시설을 둘러보시고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 5월 10일

문영목 원장님 외 1분이 한나원을 방문하시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관절주사를 놔주셨습니다.

▶ 5월 20일

구산교회 경로대학 한동현 장로님 외 134명이 한나원을 방문하시어 예배를 드리시고 한나요양원과 한나그린힐 시설을 견학하셨습니다.



사랑과 나눔

(2008년 3월 ~ 2008년 5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후원금】

- 개인 -

한나요양원 : 박철원, 서광자, 김술임, 최옥이, 정하국(3회), 박동기, 한정현, 이숙자, 이정순, 송효순, 이웅연, 신학철, 김창운, 박하서, 김숙정, 정해영, 장태산, 노동완, 이선재(2회), 차관영(3회), 장래성(2회), 김은하(3회), 김영란(3회), 김갑순(3회), 김정숙(3회), 손희라(4회), 신연옥(3회), 박영옥(3회), 이옥화(3회), 김덕수(3회), 최애심(3회), 임회환(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이미선(3회), 김영현(3회), 오은숙(3회), 안태자(3회), 김영자(3회), 조미자(3회), 전주인(4회), 한동숙(3회), 박양조(3회)

그린힐 : 경기도노인시설협회, 최중기, 홍성희, 서광자, 김은영, 김학인, 최창선, 조병선, 박소연, 김말순, 이정옥, 김수익(3회), 김남현(3회), 신수영(3회), 이경자(3회), 한동숙(3회), 김은수(3회), 조복남(3회), 박덕자(3회), 김미숙(3회), 전주인(3회), 이정분(3회), 주연화(3회), 한정현(3회), 박은영(3회), 조재호(3회), 한동원(3회), 김효진(3회), 오옥화(3회), 이소라

- 단체 -

한나요양원 : 하이닉스반도체(4회), 브이텍(3회), 씨뿌리는사람들(3회), 지방행정연수회일동, 구산교회, 평강교회(3회), 과천교회(5회), 아름다운교회, 유당마을, 동막교회(3회), 평북사회부, 평강교회(3회), 한국필름(2회), 진우정보시스템, 백화점약국, 대한예수교장로회(2회), 일양약품, 동국대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과, 보라매교회, 한나원교회

【지로후원】

한국내과(3회), 이규원(3회), 김유항(2회), 박병숙, 길석환, 김병혁, 이천정육점, 이열효

【후원물품】

한나요양원 : 평택흥광교회, 큰빛부부안경선교회, 김정열, 전주인, 김민지, 이천신하교회, OK랩상사, 박창욱, 이계찬, 정명석, 윤연숙, 김우재(2회), 신희수지회(3회), 안춘섭, 김항주, 천상의 집, 동국대 행정대학원, 평강교회 게이트볼팀, 설성노인주간보호센터, 또순이순대(3회), 대상(주), 주라장애인센터(2회), 이옥화, 지방행정연수원 제20분임원, 코스코현대물류, 장안카센터, 토아뷔페(3회), 이숙자, 한빛미술어린이집, 김영자, 김일환, 엄순이, 정신화, 김순자, 정용욱, 남덕진, 신상희, 경희대 행정대학원 케어복지전공팀

정성과 보람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린힐 : 장경자, 최운규, 홍성희, 전주인, 우광택, 이상봉, 박부덕, 김인화, 이정선, 장혜숙, 이천쌀운영회, 이찬호, 권태문, 이재원, 경철현, 임권, 안동여성복지관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 (주)대상(6회), 하이닉스(3회), 삼성전기, 이천시자원봉사센터, 큰빛부부안경, 교육청 영재교육원, 수원침례교회(의료, 미용봉사), 문영목, 효양중RCY(5회), 효양중3회), 효양고(8회), 이천고RCY(4회), 이천고(3회), 대월중(6회), 여주제일중(2회), 증포중(4회), 설봉중, 중앙교회(목욕 3회), 자원봉사센터(목욕 2회), 대월사랑회(목욕 3회), 호스피스(목욕 3회), 관고동부녀회(목욕 3회), 이천신희수지회(3회), 발사랑 봉사회, 영광교회(3회), 대월교회(3회), 조승우혜어(3회), 한정현, 지선화, 장현숙

그린힐 : 장재금외3명(미술치료6회), 해방교회(목욕3회), 신미래(11회), 신흥교회(3회), 미드레(3회), 총일교회(3회), 한국진(2회), 황다현(5회), 장로회신학대학(2회), 효양고, 효양중누리단(2회), 이천고인터렉트

【요양보호사 실습】

한나요양원 : 삼육요양보호사교육원, 이천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이천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직원교육

- 한나요양원**
- * 장기요양 등급판정교육-이정환 생활복지사
 - * 물리치료사연수회- 김덕수 물리치료사
 - * 상처관리 기본과정 보수교육- 이미선 간호사
 - * 경기도노인복지시설장 교육- 박양조 원장
 - * 노인우울과 자살예방상담- 오은숙, 박영옥 생활지도원

- 한나그린힐**
-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산화-이소라 생활복지사, 이정분 생활지도원
 - * 전국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연수회- 이소라 생활복지사
 - * 상처관리 기본과정 보수교육- 김정숙 간호사
 - * 물리치료사연수회- 장경자 물리치료사
 - * 노인우울과 자살예방상담- 이소라 생활복지사

‘서천 쭈구미축제 나들이’의 하루

한나그린힐 생활지도원 조미자

옛 추억을 생각하셔서 그런지 어르신들께서 “쭈구미”를 드시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쭈구미 축제 기간에 충남 서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여 서천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되어 쫄깃하고 통통하게 알이 들어 있는 “쭈구미 전골과 볶음”으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기념촬영도 하였고 노점에서 펼쳐지는 품바공연과 특산물시장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였습니다.



쭈구미 축제장 안에서 다 같이 모여 찰칵~~!!

동백정까지는 거리가 좀 멀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선 올라가지 못하시고 건강하신 몇몇 어르신만 동백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백정에 오르니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붉게 핀 동백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황홀한 장관이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

이 탁 트이는 느낌과 같이 시원하였고, 어르신들께선 큰 소리로 “야~호~”하고 외쳐 보기도 했습니다.

서천까지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 어르신들이 원한 것이었기에 더 뜻 깊었고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해맑게 웃는 밝은 얼굴 모습을 보니 우리 마음도 즐겁고 흐뭇하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기념촬영~~^^*

요양보호사 실습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오은숙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앞두고 각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2월부터 시작되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이론교육이 끝나면 복지시설이나 재가 시설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설은 교육원 4곳과 연계하여 실습을 받고 있다.



모두 함께 저녁식사를 돕고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매주 월요일은 3층 어르신들 목욕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오셔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휠체어에 태워서 목욕탕으로 모시고가서 씻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기, 침상꾸미기 등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월요일은 즐거운 목욕하는 날

현재 많은 실습생들이 열심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보조 중 와상환자분들의 식사 보조는 생명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버지날 카네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여가활동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무리한 시간을 활용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신체기능 유지 및 대인관계의 증진과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한나요양원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 삼성신규직원 나준서 외 34명이 한나원을 방문하시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말뚝, 휠체어봉사, 시설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박병택 외 18명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락과 매듭공예를 해 주셨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사무관 승진자 연수생 김기창 사무관 외 14명이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 산책 등 봉사를 해주시고 과일과 음료수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한나요양원 현황

입주자 (5월말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83명	15명	68명	9명	5명

직 원 (5월말 현재)	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28	1	1	1	1	3	1	1	16	2	1

학생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오은숙

이천관내 여러 중·고등학교 중 이천고 청소년단체 RCY와 효양중 RCY가 한나요양원과 학생봉사 체계를 맺고 매일 첫째, 둘째주 토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건강과 생명보호, 지역사회봉사와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실내외 청소, 어르신 휠체어산책, 말벗,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고 학생들이 게이트볼장의 풀을 뽑고있다



입구의 유리가 금방 '반짝반짝' 깨끗해졌네요

5월에는 이천교육청 영재교육원 소속 중학생 40명이 한나원을 방문하였다. 관내 각 학교 상위권 학생들인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정신과 바른 인성함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우리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휠체어 산책과 말벗을 했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나물을 다듬고 있다



교육청 영재교육원학생들의 휠체어산책



그 밖에 여러 학교 학생들도 놀토나 휴일을 이용하여 틈틈이 봉사하고 있는데 때로는 지역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멀리 타 지역 학생들도 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온 두 여학생은 생신자 어르신들을 위한 게시판을 예쁘게 꾸며주었다.

“저희가 꾸민 게시판 예쁘죠 ?”

사회복지 실습의 보람

아주대학 노홍석

한나요양원에서의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노인복지의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가 사회복지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고 접할 일이 없어서 노인들에 대해 무관심 했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케어실습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상담을 할 때 주의 할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실습을 하면서 나의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2년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를 참 좋아하셨다. 한나요양원에 실습을 올 때마다 나를 반겨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여전히 나를 예뻐해 주셨을텐데...

한나요양원에서 실습하면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특히나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나 서비스를 해주실 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또한 원장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직접 예배도 들려 주시고 어르신 개개인의 생활을 자주 살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더욱더 인상에 남는 건 원장님께서도 연세가 있으신데 항상 얼굴표정에 웃음이 담겨 있어 자상한 분이시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르신들을 요양하는 모습은 잊혀 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연간, 월간, 주간 일정표로 계획성 있게 진행되는 한나요양원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르신들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모습 또한 인상 깊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어떤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가 꿈꾸는 사회복지사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어르신들과 말벗을 나누며



간식을 드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

평양장대현교회
체험하러
와요

1907년 대부흥운동 기념



기획전시회

옛 사진에서 읽는 새로운 역사

■ 일시 : 2007년 9월-2008년 8월 30일
〈관람시간 : 10시~5시〉

주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후원 :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박물관협의회



♥ 입주 및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입주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린힐>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013,300(중산층)
 이하인 분
 영양점수가 75점 이상에 해당되는 분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천시 설성면 대죽4리에
 금년 초에 설치되어 부지 304,355㎡ 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5단기를 안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